

세조가 문수보살 친견한 곳 ... 장엄한 숲의 바다



(107) 백화산 반야사

조선조 신불의 군주였던 세조가 전국의 명천(名川)을 순례한 것은 다만 몸에 난 피부병만을 치료하기 위함은 아니었을 것이다. 물 좋은 산사를 찾아가 몸을 씻고 법회를 연 것은 등극과정에서 빚어진 살육의 업보도 함께 씻고자 함이었을 것이다.

충북 영동 반야사는 오대산 상원사나 속리산 북한암 등과 함께 세조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물 좋은 산사 가운데 하나이다.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황간휴게소를 지나노라면 왼쪽 차창 멀리 시커먼 산들이 지나간다. 해발로는 1000m에 이르지 못하지만, 산세가 자못 웅장하여 따로 백화산맥이라고도 부른다. 삼국시대에는 신라와 백제가 국경을 이루었고, 지금은 충북과 경북이 도계를 이루고 있다.

이 백화산중에 반야사가 들어선 것은 신라 성덕왕 때의 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 절의 사적이 업그레이드된 것은 속리산 북한암에 머물던 세조가 이곳을 찾아와 문수보살을 친견하게 되면서 비롯된다. 그때 세조는 문수보살을 따라 망경대 아래 영천(靈泉)에 이르러 목욕을 했다고 한다.

반야사는 영동 황간읍내에서 푸른 석천계곡을 거슬러 20릿길이다. 절 입구에 농업용수를 얻기 위한 큰 농보가 놓이면서 위쪽으로 인공호수가 생겼다. 이 호수에 향여와 잉어 등이 난데없이 나타난 것은 불자들의 무분별한 방생의 결과로 보여진다. 석천의 고유한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무분별한 방생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일주문을 지나면 맨저 호랑이 형상을 한 앞산의 너털지대가 눈에 띈다. 백화산 일대는 이러한 너털지대가 많다. 너털은 기암절벽들이 빙하기 때 물리적 풍화작용을 받아 조각이 난 채 무너져 내린 것이다.

반야사 가람들은 상하단으로 단순하게 배치되었다. 경내 조경은 특기할 만한 것은 없고, 극락전 앞에서 있는 두 그루의 노거수 배롱나무에 눈길이 간다. 배롱나무는 옛날 유학승들이 중국에서 들여와 사찰 경내에 처음 심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찰 조경수 가운데 꽃이 가장 화려하고, 홍갈색으로 매끈하게 벗겨진 줄기도 특색이 있다. 꺾꽂이가 잘 되는 나무이기에 무학 대사가 짚고 다니던 지팡이라는 전설이 사실적으로 다가온다.

극락전 주위로 대나무가 있기는 하지만, 기온이 낮은 산간이라 생육상태가 그리 탄실해보이지는 않는다. 키도 5m를 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600년 전 박홍생이 반야사에 와서 머물며 노래했던 그 대나무 숲이 아닐런지.

비가 오면 짐승교가 되는 구멍다리가 종무소 아래



반야사에서 건너본 백화산.

석천에 걸려있다. 그 다리를 건너면 관음전으로 가는 숲길이 끊어질 듯 이어져 있다.

숲길 주변으로 이따금 가을꽃들이 눈에 들어온다. 9월말, 개계수는 적지만, 반야사 주변의 산과 들에서 다양한 가을 꽃을 볼 수 있다.

‘황국(黃菊)’으로도 불리는 감국은 전체에 짧은 털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산국에 비해 꽃봉오리수는 적지만, 꽃잎이 큰 편이다. 향기는 밍하지만, 독성이 없어서 국화차의 재료로 쓰인다.

개미취 역시 국화와 식물로, 키가 1m 가까이 자란다. 가을 일찍부터 곧은 줄기 끝에 연한 자주색이나 하늘색 꽃이 핀다. 씨앗이나 뿌리를 번식시키면 사찰 조경에도 알맞다.

꽃이 핀 귀화식물로는 비짜루국화, 망초, 개망초, 달맞이꽃, 토끼풀, 미국가막사리, 미국쑥부쟁이, 미국자리공 등이 조사됐다. 심산유곡임에도 불구하고 바깥으로부터 귀화식물이 많이 들어온 것은 관광객과 등산객 등 외지인들의 출입이 잦기 때문이다.

비짜루국화는 1년생 초본으로, 반야사에서는 석천 물가에 이따금 나타나고 있다. 가지가 어지럽게 번지고, 가을이면 가지 끝에 흰꽃이 핀다.

가을이 깊어가는 9월말, 반야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곤충으로는 잠자리 종류가 가장 많다. 두점박이잠자리, 밑잠자리, 머리장수잠자리, 아시안잠자리, 쇠족박잠자리, 마이키족박잠자리, 검은물잠자리, 고추잠자리...

두점박이잠자리는 중간 크기의 몸집으로, 암수의 몸 색깔이 달라서 가끔 헷갈린다. 노란 이마에 검은 점이 2개 나 있어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 늦가을



감국.

절 입구 인공호수 무분별한 방생으로 생태계 교란 반야사 배롱나무 무학 대사 짚던 지팡이라 여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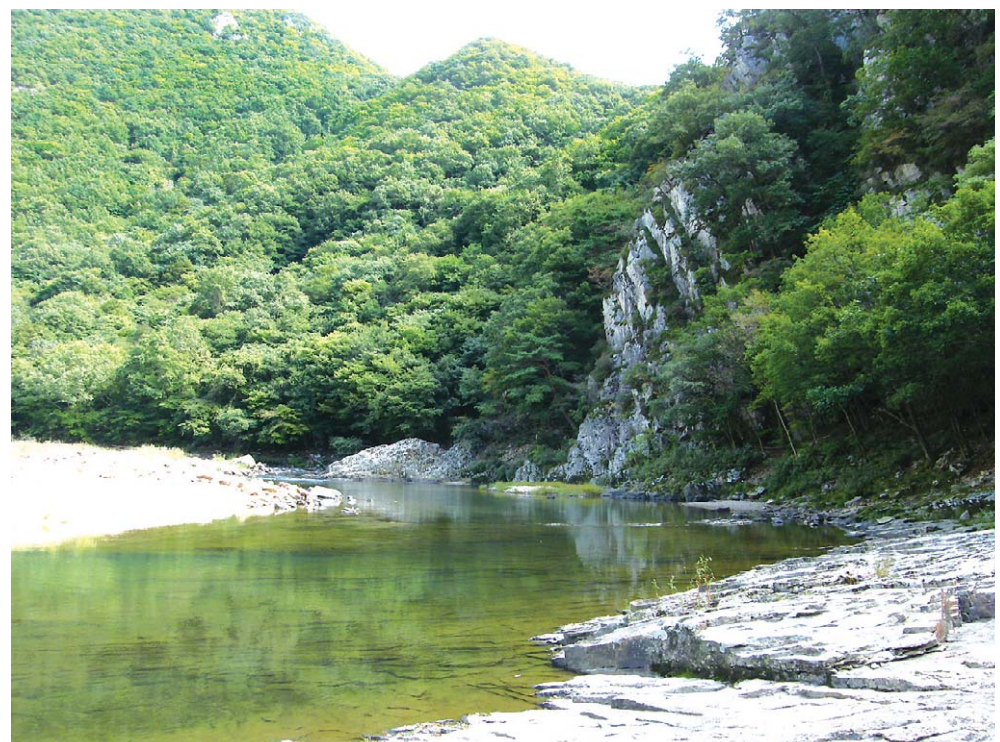
까지 살다가 짚깃기를 마치고 나서 죽는다.

반야사 일대에 서식하는 텃새로는 박새류를 비롯하여 노랑턱멧새, 딱새, 멧비둘기, 붉은머리오목눈이, 어치, 물까마귀, 굴뚝새 등이 있다. 계곡 주변 물가에서 활동하는 여름철새로는 꼬마물떼새, 물총새, 백백도요, 검은맹기해오라기, 알락갈미새 등이 조사됐다.

경내를 나와 우측으로 돌아가면 망경대 문수전으로 가는 숲길이 나 있다. 그 숲길이 끝나는 곳에 석천계곡 별천지가 열린다. 경북 상주 땅에서 충북 영동 경계를 넘어온 석천의 물이 넓은 반사 위로 면경을 깎아 내어 먹음 감았다면 것이다.

석천에는 피라미와 갈겨니가 우점하는 가운데 모래무지, 칼날자루, 돌고기, 참마자, 돌마자, 미꾸리, 참중개, 동사리, 밀어 등이 서식하고 있다. 2급수 어종인 모래무지는 모래나 잔 자갈이 깔린 곳에서 산다. 몸은 길고 등갈고, 뒤로 갈수록 가늘어진다. 주로 물속의 작은 동물들을 먹고 사는 까닭에 주둥이는 길고 입은 주둥이 밑에 있다.

이곳 석천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강의 하류에서나 관찰되는 재첩이 이곳 심산유곡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곳에 서식하는 재첩은 황갈색을 띠고, 씨알은 다른 강에서 나는 것보다 작은 편이다. 모래 속의



반야사 영천.

무, 비목나무 등의 교목들이 우점하고 있다. 그보다 키 작은 나무들은 오갈피나무, 고평나무, 노란재나무, 노박명굴, 누리장나무, 당간풍, 딱총나무, 때죽나무, 산딸나무, 생강나무 등이 있다.

고로쇠나무는 이른 봄에 수액이 많이 올라온다. 나무 껍질은 회청색이며, 세로 무늬가 나 있다. 잎은 손가락 같은 열편이 5개 안팎으로 갈라진다. 가을에 붉게 단풍이 든다.

오갈피나무는 많은 줄기가 올라와 우산 모양의 나무모양을 이룬다. 잎은 다섯장이며, 가을이면 자주색 꽃이 핀다. 뿌리와 줄기의 껍질은 ‘오갈피’라 하여 약재로 쓰인다.

문수전 발아래 석천계곡이 아스라하다. 상주 땅에서 발원한 석천 물줄기가 백화산중에 이르러 곳곳에 협곡을 만들며 마치 뱀처럼 기어다

는 모양새이다. 이를 지리학에서는 감입사행(嵌入蛇行)이라고 한다. 구비지는 안쪽엔 모래와 자갈로 선상지를 만들고 바깥쪽으로는 산을 깎아 기암절벽을 만들어낸다. 문수전이 앉은 망경대도 기암은 감입곡류가 만들어낸 절경이다.

지금도 토박이들은 석천을 구수천이라고 한다. 일찍이 석천 계곡의 아름다운 여울목을 일러 ‘구수천 팔탄’이라고 했다.

그 옛날 비경의 팔탄을 끼고 외줄기 산중절이 상주 모동광으로 나 있었다. 1914년 일제강점기 때 나온 지도에도 그 소릿길이 표시돼 있으나, 지금은 석천 물줄기만 옛 모습으로 남아있을 뿐 옛 길은 자취도 없다.

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temple-e@hanmail.net



오갈피꽃.

SAUVILA - 종합행정시스템 - Windows Internet Explorer

현대불교 창간 14주년을 축하합니다

불교계 최초로 개발한 차세대 인터넷 신개념의 온라인 종무행정 “수비라”

접수에서 다양한 통계 및 분석! 종무행정 업무에 필요한 모든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수비라 초기화면, 신도등록접수, 재무회계통계, 접수발동계

종무행정 보상판에 실시

- 종무 프로그램을 쓰고 계시는 사찰대상
- 시스템 및 사용자의 제한 없음

108사찰 한정 특가 250만원 (현리비 별도) 130만원

신도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한 사찰 홈페이지 구축

사람의 환경에 맞는 쉽고 편리한 기능제공

- 지대방 가능
- 카페, 블로그 솔루션 무상지원
- 보안 인증 기술
- 내마음의 발달(인터넷 봉사기능)무상제공
- One-stop 관리자 환경 등

송광사, 용주사, 봉선사, 부석사 등 전국사찰 50여개 홈페이지 구축 및 서비스 제공

(주)탑스컴

문의전화 031)965-6629, 031)965-8253 경기 고양시 화정동 967-1 한솔빌딩 1007호 불교커뮤니티포털(불교마을) www.templevill.com / 탑스컴 www.topscom.net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빙의, 자기 최면, 치료최면 (최면 시술사 과정)

•개강일: 10월 17일 금요일반 •개강시간: 오후 1시

▶ 교육기간: 6주(24시간) ▶ 모집 인원: 선착순 10명 ▶ 교육비용: 60만원 ▶ 대상: 스님, 포교사, 불자

특기사항

1. 10명의 소수 정예 엘리트 교육
2. 6주 24시간의 최단기 집중 현장 교육
3.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훈련비
4. 개인 교습식의 일대일 교육, 책임 교육
5.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실전 교육
6. 새로 개발된 테크닉 수시로 전수하는 평생 교육

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유일한 곳

수행과 포교 또 중생 구제에 바쁜 스님들께 귀의 합니다. 소승은 스님들께서 시간에 쫓기시고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스님들의 사정을 너무 잘 알기에 모든 거품을 빼고 최단기, 최소 교육비로 보시 하고자 합니다. 소승은 자리아타의 정신과 회향하는 마음으로 본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마하 반야 바라밀 - 무초 정략 합장 -

(사)유마 정신 건강 최면 연구소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1번출구 애경백화점 맞은편 세일빌딩 401호 ☎ 02) 763-0661~2

★ 최면을 배우시고도 시술을 못하시는 분, 자기최면이 안되는 분 개인지도 ★